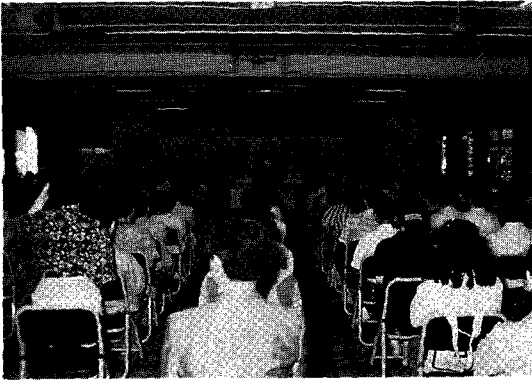


대한 양계협회

소식

제9회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 성료 강화 한국산업교육원, 200여명 참가 대성황



본회는 임직원 상호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양계인이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강화군 소재 (사)한국산업교육원 연수원에서 임직원을 비롯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임직원 수련 및 전국양계인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 최준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 양계인들이 나름대로 국제경쟁력에 대응코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미처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전에 UR협상이 타결되고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현업을 유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좌절하거나 실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우리앞에 놓여진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양계산업의 생존전략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회 회장단이 주최하고, 김포강화 채란분회(분회장 김선웅)가 주관하여 개최된 이번 수련대회는 전국의 양계인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심신단련과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전양계인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면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원광식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이 “양계산업의 정책방향”과 황인태 국제평화연구소장이 “UR과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른 양계인의 자세”에 대한 특별초청 강연이 있었는데, 특히 원광식 축산국장은 그간 타축종(소, 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양계산업을 성장시켜 온 양계인들에게 경의를 표시하고, 향후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이란 수출산업으로서가 아닌 내수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라고 전제하고 불합리한 유통구조만 개선된다면 국내양계산업이 충분한 국제경쟁력이 있다

고 강조하고, 가능한한 생산자들도 유통에 참여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만찬회에 이어 장기자랑, 계란나르기 경주대회, 2인3각경기, 줄다리기 대회 등 각종 다양한 게임들이 각도지부, 분회 및 중부 등 12개 팀으로 나누어져 각각 행사 진행 되었는데, 영광의 종합우승에는 각종경기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광주채란분회가 영예를 안았으며, 준우승에는 광주·전남지부, 3위에는 김포채란분회가 각각 차지하였으며, 가장 활동적이고, 인기있는 자에게 수여되는 MVP상은 광주·전남지부 김사균씨가 차지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양계업 발전에 공이 큰 노태모(성현부회장), 최승수(옥지농장), 전명효(진영농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원광식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에게 그간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시상식에 이어 전등사, 강화산성, 강화국방

— 다 음 —

표1.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 개최 연혁

순서	개최지	장 소	일 시	주 관
1	충남 계룡산	동 학 산 장	'86. 6.18~19	본 회
2	충남 계룡산	계 룡 산 장	'87. 6.12~13	본 회
3	전북 금산사	모 악 산 장	'88. 6. 9~10	전북지부
4	경북 경주	도투락월드	'89. 6. 9~10	경북지부
5	부 산	금 강 유 스토 호텔	'90. 6. 8~ 9	경남지부
6	전남 담양	성암 야영장	'91. 6. 5~ 6	광주·전남지부
7	경기도 포천	산 정 호 수 유 스타운	'92. 7.15~16	포천분회
8	충남 홍성	청석수련원	'93. 6.11~12	홍성채란·육계분회
9	경기도 강화	(사) 한국 산업 교육 원	'94. 6.10~11	김포채란분회

유적지(고려궁지,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 용흥궁, 마니산과 참성당) 등 관광으로 제9회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를 마쳤는데 '95년도 제10회 대회에는 10주년 기념행사를 겸하여 치러질 예정인데 그간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 개최 연혁은 표1과 같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분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박승봉)가 지난 10일~11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강화 소재 (사)한국산업교육원연수원에서 제9회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 기간에 열렸다.

지난 6월1일 생산자 고시가격 현실화 이후 처음 실시된 이날회의에서 각지역과 농장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고시가격이 농장수취가격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강제환우계군이 다소 많아 6월들어 약20% 생산량이 감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계란물량은 약간 부족되는 느낌을 받고 있기는 하나 가격인상을 고려하는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난 10월에 입식된 계군들이 금년 6월에 접어들어 큰알 생산

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금년 8월 이후 계란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본회 육계분과위원회는 지난 6월10일 경기도 강화소재 (사)한국산업교육원 연수원에서 제9회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 기간에 열렸다.

대체적으로 육계가격은 하이 1,000원, 세미

900원선으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병아리 가격이 450원~470원으로 형성, 높은 병아리값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입추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일부지역이기는 하나 부화장에서 500원대까지 받으려는 계획도 있어 초생추 가격은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였다.

질병발생현황은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농장에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후전망은 현재 하이가격이 1,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5월 초순부터 시작된 병아리 값의 폭등으로 세미가격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백세미 생산량이 다소 많아 육계가격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백세미 생산근절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도출해 내지는 못하였다.

미등록 부화장 및 종계장 고발센터 안내

- 대 상 : ○미등록 부화장 경영자
○미등록 종계장 경영자
○미검정 종계 유효기간 초과 종계 보유자
○불량종란 또는 불량초생추 생산·유통하는자
- 방 법 : 서면 또는 전화(신분 보장)
- 조 처 : ○접수후 사실확인 위법사실 확인되면 당국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
○결과 월간양계 및 양계관련 매체에 공표
- 접 수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전화 : (02)588-7651, Fax : 588-7655